

학교청소년의 결혼·출산 가치관과 정책적 함의¹⁾

*Values of the Youth on Marriage and Childbirth
and Its Implications*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원인은 가치관과 사회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산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통해 파악된 청소년 가치관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하면 향후 그들의 결혼·출산 행위나 성역할관 등은 현재 20~30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는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때,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사고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가정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한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원인을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국가와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송다영, 2005²⁾; 장혜경, 2003³⁾). 반면, 다른 일부 학자들은 결혼 및 자녀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신가정

1) 본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송다영,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005, pp.225~251.

3) 장혜경, 「가족정책차원에서 출산장려책 모색해야」, 『나라경제』, 2003년 3월호.